

금주 높은 언덕 맑은 물 언뜻은 멀리 하고 낮고 젖은 진흙물에 방긋 피어나듯 불빛도 이리 하여 우주에 그윽하니 상대적 모든 법이 하나 같이 불법일세. -유마경 불도품-

현대불교

불교신문사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4가 11-1번지 041-734-2680 대원본인사(인사)부

대표전화 02-734-8881 구독문의 02-712-6991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28일 수요일(주간) 제 312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외국기업의 '직지 찾기'

정보기술(IT)업체가 경전을 찾는다. 낯설기만 한 이 일이 지난해 9월부터 청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보저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국EMC(대표 정형문)가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직지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EMC 정형문 사장은 "직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저장·보호·관리하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EMC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회사와의 만남을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사라진 기록문화를 찾고, 그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직지찾기 운동은 정보의 가치와 그 보존의 중요성에 일깨우는 것이자, 문명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꼭 찾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언젠가는 '직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일어버린 수백점의 소중한 성보들은 이러한 마음이 하나될 때 되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취재 2부 기자)

장군 죽비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공동체 마을' 그 시원(원)은 승가공동체. (9면)
-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오해다. 인간 중심주의는 세상을 망칠 뿐이다. 두두물들이 부처 라는 부처님 말씀을 명심하시길... (10면)
- ◇'지금 이곳'을 해탈의 소리로 장엄하는 니르바나 살대야단. 부처님 가르침을 선율에 담아 사바로 띄워 보낸다. (14면)
- ◇사람 소장 국보급 문화재. 절도범의 손에 무방비 노출. 교환가치(돈)로 문화재를 보는 한 도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3면)

'자비 실천 새물결 운동'

조계종 복지재단 전개
4월 18일~5월 1일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
'1배-100원' 기금 조성

수행과 봉사를 통해 자리아타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다 대적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은 올해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해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를 여는 등 '자비실천 새물결운동'을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개한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는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는 20명이 조

를 이뤄 1시간씩 정진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배당 100원씩의 기금을 내게 된다. 복지재단은 모인 기금을 교계 단체가 후원하는 불치병 아동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법회에는 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일반인 등 모두 1천여명이 참가한다. 또 철야정진 법회 직전에는 조계종 단 집행부 스님 및 복지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비실천 새물결운동 선포식'을 갖는다. 복지재단은 지방의 사찰 및 불교 단체들도 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해 노력봉사를 통한 사찰중심의 자원봉사에서 수행을 통한 지역중심의 자원봉사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월 18일부터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개인불자들이 참여하는 '한마음새물결축제'가 5월 1

일까지 계속된다. 이 행사는 각 사찰과 단체, 개인불자가 복지재단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해당지역의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1만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자원봉사로 부처님의 '자비'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을 포함한 지방 주요 도시 중심가에 불교자원봉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소개 및 불교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4월 18일에는 승가원, 연화복지회관, 원심회,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교계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부처님 오신날을 300여일 앞둔 22일 한양문선원 신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등행진에 선보일 나비등과 어우렁각지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한양문선원은 움직이는 용과 학 등 아름다운 전통등을 만들어 4월 29일 제등행진 때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조계종, 발상전환 촉구
불교계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조계종은 총무부장 원태,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 원장 화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환경 종교 사회단체들의 거듭되는 밤샘농성과 단식, 항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2의 사회화가 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정책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총회도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간

'종교 NGO 네트워크'

4월 4일 출범
불교 개신교 천주교 NGO들이 참여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가 내달 4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참여불교계가연대, 기독교대 불신도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참여단체들은 4월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시민사회와 종교'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 단체들은 공동 홈페이지 구축, 출판사업, 공동워크숍, 대중강좌, 대외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국종교의 내부 개혁을 위해 정진할 계획이다. 02-725-8231 김재경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탕피, 단정, 단집
02-725-2030 / 725-2040

두 원장 동반사퇴 태고종 내분 일단락

28일 새 총무원장 선출

약화일로로 치달던 태고종 내분이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동반사퇴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태고종 중앙총회회장 남파는 28일 오전 11시 선암사에서 81회 임시총회를 열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종연스님과 80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또 다른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7일 서울 성북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안정과 중도화합을 위해 오늘(17일)로 동반사퇴한다"고 밝혔다. 종연스님은 "총무원장으로 서명할 포부도 많았지만 더 이상 종단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법장스님과 분규중식을 위한 논의를 여러 번 거쳤고 16일 총회의장 남파스님을 만나 동반사퇴하겠다는 합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태고종이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총회에서는 새 청 7인방"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스님들이 후보에서 가급적 배제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



◇종연(왼쪽)스님과 법장스님이 17일 종단화합을 위해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화해의 약속을 나누고 있다.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 유적을 찾아간다. 영화 '조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전파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 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사1한상을 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형현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 소림사·용문석굴·백마사·대상국사
- ◇일정: 5월 2일(수)~5월 6일(일) 4박 5일
 - ◇참가비: 73만원(항공세,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수비는 별도)
 - ◇접수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 ◇접수기간: 4월 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신정호)
-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아주세계여행사
●후원: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결 의 문

- '민족의 영산' 한라산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지 마라 -

제주도가 국토 최남단을 지키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추진하여 한라산의 정기훼손과 자연생태계의 대규모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과 국토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한라산은 1천8백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생태계이며, 식물의 보고이다. 오백나한, 영실 등의 지명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성지이자, 정신적 귀의처인 한라산의 아름답고 장엄한 품에 기대어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가치와 소중함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제주도는 명산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첨병역할을 해 오며 오직 인간의 오르기 위한 욕구만을 충족시켜온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한라산의 가슴에 대형 쇠말뚝을 박고자 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입장객의 분산을 통한 등산로와 한라산의 보전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기에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인간의 결으로 돌아올 수 없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강조한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존형 케이블카'는 자연파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명일 뿐이다.

격렬하게 벌어진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 케이블카

추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강행하였다. 불교계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불참속에서 강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여론은 오차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과반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수익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 제주도는 케이블카 계속 추진입장을 재확인하며, 환경부에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국의 명산과 사찰의 수행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경적인 케이블카 건설 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강행될 경우 범불교적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한라산의 정기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 환경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불기 2545(2001)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